

## 상식의 의의

수필가 최규자

사전에서는 상식(常識)을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져야 할 표준지력, 지식이나 판단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해력이나 변별력 따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상식이 풍부한 사람, 혹은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따르거나 평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상식가(常識家)라고 부른다. 상식(常識)은 흔히 상식(常食: staple food)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한다. 늘 먹는 음식과 같이 정신적으로 늘상 표준적 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는 몰상식(沒常識)한 사람을 종종 본다. 상식이 없는 것이다. 몰상식한 소리를 하거나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한다. 문제를 상식선(常識線)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되지도 않을 아집(我執)만 부리면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상식적(常識的)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상식에 속하는 사고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세상 일반이 보편적으로 생각

하는 것을 제일로 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도 이른바 상식주의(常識主義)의 만연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생활을 상식화(常識化)하여야 한다.

상식이란 본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일반의 보통인이 가지는 혹은 지녀야 할 일반적 지식이나 이해력·판단력·사려(思慮)·분별력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표준의 지력(標準知力)을 말한다.

이 말에 해당하는 외국어로는 라틴어의 센수스 코뮌니스(sensus communis), 독일어의 게준더 멘셴퍼르슈탄트(gesunder Menschenverstand), 프랑스어의 상스 코뮵(sens commun), 영어의 코먼 센스(common sense)가 있다. 영어에는 common sense 외에도 많이 있다. good sense, practical sense, practical wisdom, mother wit, 그리고 horse sense라는 구어도 쓰이는데 속된 지식이라는 뜻이다. 역어로서의 상식은 <평범 또는 보통의 지식>, <항시적 지식> 또는 <공통의식>의 뜻을 지니고 있다.

상식을 철학상의 개념으로서 처음으로 고찰한 사람

은 옛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였다. 그의 심리학이 라틴어로 배워져, 공통의 의식능력(sensus communis)과 공통적 감각 성질(sensibilia communia)이 수립되었는데, 후자를 지각하는 능력이 전자라고 했다.

처음으로 상식을 철학상의 원리로 주장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생의 영국의 철학자 리드(T. Reid: 1710~1796)였다. 역시 스코틀랜드 출생인 회의론의 철학자이며 역사가 흄(D. Hume:1711~1776)의 비판에 의해 생겨난 것이 상식철학 또는 소박 실재론이다.

리드에 의하면 흄 철학(Humean)에는,

첫째로 정신의 내부에 있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지각되지 못하고,

둘째로 지각의 대상은 외적 사상(事象)이 아니고 정신내의 이념 또는 인상이다.

그러나 개념이나 인상이 정신의 내용이라면, 개념이나 인상은 순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우주가 육체·정신·태양·달·별·지구·우인·친족이 잠시 출현한 후 곧 사라진다.

간단히 말해서 흄 철학은 모든 학문적 이론을 통째로 뒤집는다. 이 철학에 대신하는 입장은 5개(five organs of sense)의 외적 감각, 즉 청각·후각·미각·촉각·시각을 인정한다.

그리고 5관에 의한 감각의 기체(基體)가 현존하는 확신, 그 감각이나 과거에 존재한 확신, 어떤 것이 미래에는 단순히 취해진다는 구상, 이러한 3개의 확신과 구상을 인정한다.

이는 인간의 신체적 구조에 속하는 제1원리이며, 이성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흄의 선배인 아일랜드의 주교이며

철학자 버클리(G. Berkley:1685~1753)에 의해 <존재는 지각된다>고 단언되었으나, 이 언명은 <형이상학적 광기(狂氣)>라고 리드(T. Reid)는 평하고, 물질계가 존재한다는 신념 앞에 이성만 무릅 꿇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였다.

신념이 상식의 기초하며 원리이다. 제1원리이나 상식의 원리를 이성은 파괴하거나 또는 창조하지 못한다. 이 원리없이는 무엇이나 어느 것이고 될 수 없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I. Kant:1724~1804)는 반드시 리드를 존경하지는 않으나, 건강한 인간의 오성(悟性: gesunder Menschenverstand)이라는 말로 상식에 관해서 논술했다.

그것은 바르게 판단하는 일종의 공통적 오성(gemeiner Verstand)이라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상식 즉 건강한 인간의 오성에 호소하는 것은 투찰력(透察力)없이 강행하는 안이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솔직 단순한 상식은 하늘이 내린 위대한 선물이다. 그러나 행동에 의해 그리고 숙고와 도리에 의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상식에 고(告)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식이 시인하지 않는 여하한 재주(talent)와 지혜(wisdom), 곧 재지(才智)도 제시되지 못한다해도 신탁(神託:oracle)으로 상식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식을 신탁 취급하는 것은 다수자의 판단을, 즉 박수(拍手) 찬성을 구하는 일이다. 거기에서는 철학자는 부끄러워 하지만, 어설픈 재담자(才談者)는 우쭐해서 의기양양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식을 논하는 것은 결국 칸트가 상식을 낮게 평가한 것을 의미하나,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의심도 없고, 상식으로 쓰이는 법의 개념은

정밀한 사색(思索)이 개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다른 점은 상식의 일상적 사용에는 사고 중의 다양한 표상이 의식되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즉 상식에는 정밀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으나, 공개되어 있지 않은 채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상식에 관해서는 미국의 철학자이며 교육가 페리(R.B.Perry:1876~1957)도 논하고 있다. 상식은 다수의 승인에 의해 존립을 허가하는 잡다한 확신에서 이루어져 있어서 문제시 되지않고 오히려 의당하고 당연한 일, 즉 당연지사(當然之事:a matter of course)로서 인정된다.

상식은 보수적인 의견이며 사람의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된다. 경화(硬化)해서 일률적인 신념으로서 다수인의 추리활동의 무의식적 전제가 된다. 상식이라면 타인과 서로 나누면서, 그 의미가 음미되지 않는 채로의 일종의 선입관념이다.

이 관념이 음미되면, 상식적 관념의 금성(金城)의 철벽(鐵壁)은 취약해져 상식의 마력은 사라진다. 가령 어제의 기인(奇人)의 말은 오늘은 상식이 될 수 있다. 또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진부(陳腐)하거나 또는 괴기(怪奇)하게도 된다. 상식을 굳건히 지탱하는 것은 결국 습관과 모방이다.

그리고 믿어져서 반복 주장된 일에 의해 고정되고, 그만큼 믿어지기 쉽고, 그만큼 부정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주위의 사람들이 믿으면, 불신의 사람은 적의(敵意)를 품은 의념(疑念)의 과녁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화에의 위협(威脅)으로 간주된다하여도 그렇다해도 상식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상식은 참다운 지도자이나, 그렇다고 그것은 최종

의 법정은 아니다. 그것은 혹시 상식이 항상 진(眞)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식에 기필코 도전하는 것이 철학이다. 지성이 상식의 소파에서 곤하게 낮잠 자는 것을 꼬집어 뜯어 잠을 깨게 하는 것은 결국 철학이다.

소크라테스·베이컨·데카르트·로크·칸트 등과 같은 대철학자는 상식을 자극해서 눈뜨게 하고 곧 새로운 상식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너무도 전문화해서 독선의 자리에 참석한 철학에 자극을 주는 입장이 필요하며, 그 역할은 상식이 연출한다고 논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에게 공통적인 의식(意識)으로서의 상식을 궁극의 원리로 삼는 철학이 이른바 상식 철학(常識哲學:commonsense philosophy)이다. 영국의 리드(T. Reid)가 창시자인데, 버클리(G. Berkely)의 관념론이나 흄(D. Hume)의 회의론 등은 철학은 진리를 모호하게 한다고 반박하였다.

또 자명(自明)한 원리를 직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인 상식이야말로 진리와 철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발생하였다. 진리의 마지막 근거를 상식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학파로,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걸쳐서 나타난, 계몽철학계열의 한 학파였다. 미학(美學)과 종교에도 적용되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의 계몽철학(philosophy of enlightenment)에 영향을 끼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